1999년 8월, 아프리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를 출발하여 벨기에의 브뤼셀에 도착한 비행기 화물칸에서 꽁꽁 얼어붙은 흑인 소년의 주검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14세, 15세의 두 소년은 유럽에 밀입국하려다가 매우 높은 고도에서의 영하 50도나 되는 저온상태 비행으로 인해 동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처음 본 브뤼셀 국영항공사 직원들은 손에 쥐어져 있던 프랑스어 편지를 보고 이들의 밀입국 의도를 알게 되었는데, 간절한 그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기니의 소년 야킨 고이타와 포드 투르카나라는 이름이 있었고, 수신인의 이름에는 유럽의 지도자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럽의 지도자 여러분, 저희 둘의 험난한 여행과 고통의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에 시달리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학교 건물은 있지만 선생님과 책이 없어 공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저희에게 조금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희들이 죽어서 발견되거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과 참상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려 했던 뜻을 헤아려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접한 루이 미셸 벨기에 외무장관은, 감동 어린 편지를 유럽 각국에 보내 소년들의 소망을 이루는데 동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기니의 두 소년의 시신은 부모들의 품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의 유언은 유럽 전 세계에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과 고통에 대한 해결은 단순한 생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함께 해야 할 의무입니다.”

 (‘좋은 생각’중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나누라고 하면 아깝고, 믿으라고 하면 오해하고, 서로 함께 하자고 하면 의심하고.

야고보 사도는 신앙인의 삶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야고1,27)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써 함께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산사에 스님과 동자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마당에 큰 원을 그리고 동자승을 불렀습니다.

스님이 동자승에게 “네가 이 원에 들어가면 열흘 동안 공양을 주지 않을 것이고, 원 밖에 머문다면 절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자승은 난감했습니다. 원 안에 들어가도, 바깥에 머물러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긴 동자승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동자승은 마다 한 구석에 놓인 빗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곤 스님이 그려 놓은 원을 쓱쓱 쓸어 버렸습니다.

원 안에 머물지 않고 바깥에도 머물지 않을 방도는 원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동자승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좋은 생각’2015년 9월호 중에서)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님 원 밖에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원 안의 사람과 원 밖의 사람을 나누고, 나와 너를 나누고, 흑과 백으로 나누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며,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과 손해를 입힐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누구랑은 사귀고, 누구랑은 사귀면 안 되고, 누구랑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동자승은 안과 밖을 나누는 그 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놓은 것은 어떻게 지우시겠습니까?

나눠놓은 것은 사랑으로 지워야 합니다. 사랑은 나누지 않고 함께 하게 합니다. 구분이나 구별하지 않고 함께 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이미는 홍콩의 유명호텔 홍보담당자입니다. 그녀는 도무지 모르는 것이 없고, 고객의 나라에 대해서까지 모두 공부하자는 원칙을 세울 만큼 야무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존경하는 인물은 재키 찬이었습니다. “재키 찬? 액션 스타 성룡?”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에이미는 신이 나 죽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키 찬은 정말로 훌륭해요. 그는 오랫동안 홍콩의 초등학교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초등학교에 수영장이나 훌륭한 실험실이 생겼지요. 그래서 재키 찬은 마침내 홍콩의 유명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멋진 일이지요. 학위수여식이 있던 강당은 주인공이 주인공인 만큼 발디딜 틈도 없었어요. 재키 찬은 아주 짧은 연설을 했어요.

‘지금 이 강당에 계신 분 가운데 저보다 학력이 낮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요. 언젠가 제가 돈을 많이 벌어 때가 되면 원없이 공부하겠다고 어린 시절 결심했었죠. 저는 열심히 일했고 또 운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머리에 들어가지를 않더군요. 공부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세요’ 라고요.

저 역시 책에 있는 것이 어디 가냐며 공부하기 싫어했던 홍콩의 여러 아이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신나게 놀았지요. 물론 그 생활도 좋았지만 지식이야말로 재산이죠. 저는 제 인생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짧은 연설을 듣고 결심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투자는 바로 공부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에이미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 날’의 에이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좋은생각’중에서 ‘간절히@두려움 없이’, 전여옥님의 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한 우리 스스로가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잘못된 결과에 대해 ‘내 탓이요’를 외치기보다 ‘네 탓이오’를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준이 되어 선택한다면 후회하거나, 탓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 노력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피렌체로 올라가는 중에 있는 오르비에토라는 도시의 주교좌 성당에는 성혈로 얼룩진 성체포가 있습니다. 성체 기적으로 인해 성혈 흔적이 남았다는 성체포입니다.

13세기 보헤미안 지역 출신의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사 중에 성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보다 굳건하게 하기 위해 로마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순례 중 오르비에토에 가까이 있는 볼세냐라는 동네를 지나면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성체가 진짜 예수님의 몸임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몹쓸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정말로 성체와 성혈로 변화될까?’ 그 순간 성체에서 성혈이 흘러나와 지금의 성체포를 적셨다고 합니다.

(‘소금 항아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성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체를 모셨습니다. 영성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영성체할 때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신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살아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라면 성체는 다만 작은 밀떡일 뿐입니다.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누구에게나 친구들과 가위 바위 보 놀이를 하며 서로 이기려고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재미있게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바위’ 가 ‘가위’ 를 이기고, ‘가위’ 는 ‘보’ 를 이깁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제일 약한 것 같은 ‘보’ 가 제일 강한 ‘바위’ 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놀이에 담겨 있는 살아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은 부드러움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입니다.

〈지하철 사랑의 편지〉, 용혜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완전한 모습이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무섭고, 강한 것이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이 아닌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온전히 내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는 사랑이 아닌 그냥 실천하는 사랑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한 부대가 밀림에서 적군과 마주쳤습니다. 격전을 벌이던 중 군인 두 명이 낙오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름이 넘도록 지냈지만 부대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슴 한 마리를 잡아 그 고기를 먹으며 둘은 근근이 버텼습니다. 전쟁 통에 동물들도 사방으로 다 흩어졌는지 더 이상 잡아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고림된 그들에게는 결국 사슴고기 한 조각만 남았고 젊은 군인이 그것을 짊어졌습니다. 밀림에서 그들은 또다시 적군과 마주쳤습니다. 결전 속에서 둘은 기적적으로 피해 달아났습니다.

막 안전한 곳으로 숨었나 싶은 순간 총성이 울리고 앞서 걷던 젊은 군인이 푹 꼬꾸라졌습니다. 다행이 어깨를 관통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뒤따르던 동료가 급히 뛰어와 그를 끌어안고 흐느끼며 자기 옷을 찢어 상처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어깨에 총을 맞았던 이는 q로 안데르센이었습니다.

“나는 누가 총을 쐈는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내 전우였지요. 그가 달려와 날 끌어안았을 때 총구의 뜨거운 온도를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가 날 쐈을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를 용서했어요. 내가 들고 가던 사슴고기를 혼자 먹고 싶었다는 것도, 어머니를 위해서 그가 꼭 살아남으려 했다는 것도 나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난 이 일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너무나 잔인해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요. 함께 제사를 드리던 어느 날, 그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하지만 내가 말을 막았어요. 우린 수십 년 친구고 난 이미 오래전에 그를 용서했으니까요."

(우쉬에강 / 황소자리 / ‘바보철학’에서)

‘아름다운 용서’라는 제목이 있는 글입니다.

용서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용서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이의 진성함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나거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움이 다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용서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청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 속에서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우산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ᆞ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 비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 비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 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마른장마에 단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도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로 우산은 유용합니다. 유용한 것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겠죠?

우리 자신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용할까요?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로써 그 존재의 이유로 모두에게 유용하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유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한 개에 1페니짜리 과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과자를 사러 동전을 가지고 가면, 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과자를 헤아리면서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습니다. 새로 차린 가게가 등장하자 어린이들은 앞을 다투어 그곳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은 다시 조 할아버지의 가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새로 생긴 가게의 사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이유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조 할아버지의 가게와 자신의 새 가게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새 가게의 점원은 아주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10페니를 내고 과자를 달라고 하면 과자를 한 줌 봉투에 넣은 다음 과자가 열 개만 남을 때까지 봉투 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꾸며놓은 널찍한 과자가게와 그 예쁜 소녀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게는 못생긴 조 할아버지가 있는 곳보다 훨씬 신선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못생긴 조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새로운 가게의 예쁜 점원처럼 봉투에 든 과자를 다시 집어내는 따위의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씩 넣어 주는 방법으로 숫자를 더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가게에서 과자를 살 때마다 뭔가를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조 할아버지 가게에선 오히려 덤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 할아버지의 인간적인 방법이 다시금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좋은생각’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어라’, 이범준)

인간적이라는 것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아이들 편에서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 하시며, 우리에게 묻고 우리의 선택을 언제나 존중해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가수가 2주간의 지방 공연을 마치고 배를 타고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 배에서 2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는 한 신부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배는 항구에 도착했고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수는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꽃다발과 환호 속에 파묻히게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를 마친 신부님은 낡은 트렁크 가방 하나를 달랑 들고서 맞이하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히 배에서 내려 자신이 가야 할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세월이 흘러 그 가수는 인기가 떨어지게 되었고, 신세대 가수들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가수는 나이를 먹는 것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배에서 만난 신부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을 만나 자신의 고민을 말하게 된 가수에게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 많은 질투를 느꼈다네. 단 2주간 다녀온 사람에게는 금의환향인데,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나를 반겨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불평을 했지.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기도 중에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더군. ‘아들아! 너는 아직 네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김윤수 / 눈과마음 / ‘중 같은 신부, 신부 같은 중’에서)

어느 유명한 배우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늙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 무섭다.” 고 말입니다.

가끔 사제인 저도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서운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온갖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함과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집에 도착하면 안심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듯이 하느님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자랍니다.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장합니다.

나무들에게 정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고정된 형태나 정해진 틀도 없습니다. 언제 얼마만큼 어떤 모양으로 자라야 한다는 법칙과 기준이 강요되어 있다면 나무들은 스트레스로 숨을 못 쉬어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나무들은 언제나 변화의 가증성에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늘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나무는 지난봄에 피운 꽃의 영화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탐스런 열매의 영광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비우고 떨어뜨리며 기꺼이 시작을 준비합니다.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봄이 오면 또다시 꽃을 피우고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만들어 갑니다. 나무는 과거와 미래를 떨쳐 버리고 온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지 않고 이 순간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날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스쳐 가는 바람처럼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최병성 / 열림원 / ‘딱새에게 집을 빼앗긴 자의 행복론’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두 손에 가득 담고 있으면 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두 손에 가진 것을 놓아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것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을 주셨고, 그 사랑이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고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나누어 비움으로써 더 좋은 것 하느님의 것을 채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당 화장실의 휴지가 살살 없어진다고 전도사가 말합니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겠지. 혹, 우리 교인 중에 누구라면 천당(?) 가기는 틀렸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싸가지로 천당은 가서 뭘 한담.

우리 집은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환히 내다보이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창만 열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노인네 한 분이 뒷짐을 짚고 예배당으로 쑥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교회는 나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왜 들어가시지? 기도하러 가시나? 교인이 또 하나 느나 싶어 기분이 좋아지려는 찰나, 아뿔싸! 할머니 손에 그득하게 들린 화장지 뭉치가 보입니다.

“여보 여보! 빨리 나와 봐. 할머니가 화장실 화장지 가져가는 범인이야!” 설거지를 하던 마누라가 후다닥 뛰어 나와서 보고는 이럽니다. 급한 목소리로, “빨리 가서 할머니 붙잡아요.” “붙잡아? 그래서 어떡하게.” “화장지 놓고 가시라고 그래요.” 나는 그제야 사태의 해결을 알았다는 듯이 튀듯이 문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할머니!” 우당탕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소리치는 난리 통에 할머니가 걸음을 툭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쓱 보십니다. 마치 ‘무슨 일이냐’는 듯이 말입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그 다음 일을 잊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머쓱해진 건 납니다.

나는 꾸벅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그거 부드러워요?” (허태수 / 리즈앤북 /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랑이 만든다.’에서)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마태6,21)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의 것은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랑에 있나요, 아님 나는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손해가 아니라 하느님을 따름으로서 하느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집에 도둑이 침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주인인 나에게 도둑은 두말할 필요 없이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힘을 다해 그와 결투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아닌 그 도둑의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해요.

그는 세상의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의로운 존재이며, 자신을 내버려 둔 이 세상이 매우 잔혹하다고 생각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어쩌면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 세상을 적대시한 나머지 날쌔고 사나운 매에게 언제 잡혀 먹힐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늙은 어미닭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전쟁에서 상대를 완벽히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병법에 정통한 대가이고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적의 입장에서 상황을 따져 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석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 봄풀출판 / ‘오륜서’에서)

우리는 이상하게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다시는 만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를 보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은 부인이 힘없는 걸음걸이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한쪽 눈이 없는 아이가 안대를 한 채 놀고 있었는데, 부인이 염려가 되어 물었습니다.

“눈을 다쳐 힘들지?”

“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좀 오랫동안 해적놀이를 하는 것뿐인데요, 뭘!”

새소리처럼 명랑한 아이의 말은 부인에게는 큰 충격이자 계시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부인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힘드시겠어요.”

부인이 기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괜찮아요. 해적 선장이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뿐인데요, 뭘!”

(김정빈 / 동화출판사 ? ‘행복은 따뜻한 마음에 온다’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 마음에 두고 힘들어 하고 아파하며 후회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지금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멋진 돌탑이 있었습니다. “오, 이처럼 멋진 탑을 보다니! 정말 아름다운 탑이구나.” 돌탑을 보는 사람들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경탄하였습니다.

그 멋진 돌탑도 한때는 반쯤 무너지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돌들이 서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들 중 동그란 무늬가 있는 돌이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다 보니, 우리는 멋진 탑도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한 돌로 지낼 수밖에 없구나, 난 이렇게 평범한 돌로 있다는 게 너무 슬퍼.” “그건 나도 그래, 그렇지만 서로들 양보를 안 하니 어쩌면 좋아.” 둥글납작한 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돌들도 하나 같이 같은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다른 돌 탓으로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동그란 무위 돌이 말했습니다. “애들아, 난 멋진 탑을 만들기 위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 욕심을 버리겠어. 난 멋진 탑을 만들 수 있다면 어느 자리라도 좋아.” “그, 그래? 그럼 나도 그럴 거야.” 동그란 무늬 돌의 말을 받아 둥글납작한 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들은 너도나도 그러겠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들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놀랍도록 멋진 탑이 완성되었습니다. 돌들이 각자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자 멋진 탑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옥림 / 미래북 /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아주 멋진 탑은 돌들이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각자의 자리에 놓여지면서 만들어 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의 도움,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의 진정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홍루몽’(중국 청나라 때 조설근이 지은 장편소설.)에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비록 잠시는 뜻을 이루는 듯하나 결국은 스스로 발등을 찍어 생명을 잃는다.” 이 말은 대단히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을 좇다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바보로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이라면 다 아는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고, 일단 때가 되면 모든 벌을 돌려받는다.”

이 속담은 정말 이치에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습니다.

한나라 때 양진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려는 자들에게 “사지(四知)”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사지”입니다. 이에 하나가 더 붙으면 오지(五知)인데, 바로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양진은 백성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 똑똑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다른 사람들도 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보로 여기는 진짜 바보는 요즘 들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똑똑하다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도 바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 사회전체가 똑똑해지고 안정될 것입니다.

(지셴린 / 멜론 / ‘인생’에서)

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바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추기경님께서는 스스로 바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바보는 참으로 순수하고, 자연의 이치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이 세상엔 바보는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니 다른 이들이 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위선적인 사랑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진정한 사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은 ‘예언자’라는 시집에서 ‘받아 주는 자비심’에 대해 역설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비심이라면 남에게 베푸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브란은 놀랍게도 ‘받아 주는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일깨웁니다.

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늘이 내리는 비를 대지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지는 곧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이 주는 사랑, 칭찬, 호의를 받을 줄 모른다면 우리의 삶 역시 황량한 사막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이 주는 선물과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당신과 나는 가족과 친구와 우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지닐 수 있을 때 당신과 나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진하 / 푸른영토 / ‘오늘, 행복하여라’에서)

우리는 항상 갑의 위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을 보이면 갑의 위치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갑이면서 을입니다. 항상 주면서 또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이면서 또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잘 받아들일 때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만의 삶이 아닌 함께 하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큰 물건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짐짓 모른 척 나는 내 할 일만 합니다.

"선생님 벽시계가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진 것은 다시 올려놓으면 되지 뭐. 모두 꼼짝 말고 있어. 유리 조각을 밟으면 큰일이니까".

아이들은 내가 벽시계가 떨어진 현장을 재빨리 치운 것이 못내 서운한 표정들입니다.

"야, 시계가 묵사발이 되었는데도 똑딱똑딱 잘도 가네. 이 요술시계를 만든 마술사가 누구지?"

이 정도면 정작 시계를 떨어뜨린 범인은 충분히 야단도 맞았고 잘못도 뉘우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재미있게 사태를 처리해 준 선생님이 고마워 아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학생이 벌개진 얼굴로 살짝 웃습니다.

아이들의 실수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저지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어린이의 실수를 노골적으로 야단치고 면박 주는 일은 그리 좋은 교육방법이 아닙니다.

교실에서는 늘 뭔가 자주 깨지고 부서집니다. 한 학생이 벽시계를 떨어뜨린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국화 화분 한 개가 깨졌습니다. 벽시계를 떨어뜨린 학생은 아이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화분 조각을 꼼꼼히 모아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국화 화분을 원상태로 정성껏 짜 맞추고 화분 안팎에 찰흙덩이를 두껍게 붙여서 말린 뒤 그림을 그리고 니스 칠까지 해서 학교로 가져왔습니다. 순간 그 놀라움이란....

자신의 실수를 따뜻하고 멋지게 용서받던 일을 떠올린 그 학생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친구가 깨뜨린 국화 화분을 이용해 명작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최영재님의 글)

우리는 하느님을 자비의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는 이런 언제나 용서해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자신을 용서하는 자비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석공은 땀을 흘리며 비석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비석에 명문을 각인했습니다.

그 과정을 한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마무리 짓는 석공에게 다가가 “나도 돌 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소. 그리고 돌에 명문이 새겨지듯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에 내 자신이 새겨졌으면 좋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 꿇고 일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인터넷’에서)

겸손은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겸손 할 수 있고, 겸손하기에 사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언제나 자만과 이기심과 욕심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이들은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이기심을 갖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며,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함께 합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겸손되이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수지 아래로 난 길에 작은 시멘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 놓은 다리인지는 알 수가 없고,

난간이 삭아서 그 속으로 녹슨 철근들이 뼈처럼 내다보이지요.

제가 거기 그렇게 놓여진 뒤로,

얼마나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저를 밟고서 개울을 건넜는지,

아마 그 다리는 까맣게 모를 거예요.

그 무지(無知)가 오늘따라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지요.

아아, 주님, 저도 저 다리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어디 있다는 의식도 없이,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했다는 기억도 없이,

그렇게 티 없이 깨끗하게 낡은 몸으로,

그러나 있을 만해서 어김없이 제 자리에 있는 몸으로

슬프고 착하게 한 세상 살다 갈 수 있을까요?

(이현주 / 생활성서사 / ‘하루기도’에서)

“자기가 어디 있다는 의식도 없이,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했다는 기억도 없이” 라는 표현은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다른 이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봉사자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 봉사를 받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몽골을 여행하다 보면 종종 느낌표(!)가 그려진 도로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두고 나는 ‘길을 음미하라’ 혹은 ‘느긋하게 길을 느껴라’ 라는 식으로 자의적인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길이 위험하다는 경고 표시입니다. 고비를 여행할 때와는 달리 알타이를 여행할 때면 협곡과 구름을 번갈아 넘어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길을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도로의 느낌표 표지판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개울을 건너야 하는 강변길에서도, 중간에 포장이 끊겨 공사 중인 포장도로에서도, 사막을 우회하는 모랫길에서도 어김없이 느낌표 표지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느낌표 표지판이 있는 도로를 지나면 어김없이 멋진 계곡이 펼쳐지거나 기막힌 초원의 언덕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위험을 넘어선 곳에 펼쳐진 그지없는 평화로움! 언제나 나는 도로의 위험보다는 위험의 끝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생각했던 ‘길을 음미하라’는 생각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요한 / 상상출판 / ‘잠시만 어깨를 빌려줘’에서)

‘녹록치 않은 위험을 넘어선 곳에 펼쳐진 그지없는 평화로움!’ 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은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편안하게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구원도 주님의 수난과 죽음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포기 하지 말고 힘내요.

어느 날 저녁, 돈 치마티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가운데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진흙투성이 강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조심스레 기도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웅덩이들을 피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모노를 입은 한 부인이 꼼짝 않고 선 채로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부인이 신발 끈 한 짝을 잃어버렸음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신발을 발에 고정시키는 부드러운 끈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곤경에 처한 기모노를 입은 그 부인은 몸을 구부릴 수 없었고, 드물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돈 치마티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끈 한 조각을 꺼내서 신발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돈 치마티의 친절함과 어린이 같은 미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적절한 말을 찾고 있는데, 돈 치마티는 어느새 길을 벗어나 가톨릭 선교단의 작은 마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 부인은 선교단에 찾아와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돈 루이지 달 피올은 그 부인에게 그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 일화를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지요.”

어쩌면 이 작은 일화에는 돈 치마티의 전부가 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과 천진무구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 겸손한 그의 활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테레시오 보스코·가예따노 꼼프리/생활성서사/‘사랑의 마에스트로 돈 치마티’에서)

사랑은 감동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분의 삶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두꺼운 렌즈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 점점 시무룩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애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찍어 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게 하기 위해 일부러 심부름을 자주 보내고, 자기의 장애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장애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딸애를 데려가 봉사하며 그곳 친구들을 사귀게 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아이는 반듯하게 자라 어느 덧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력은 흐릿한 형체만 보일 정도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딸이 빈방에서 뚫어지게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한다 하더라도 잘 보이는 눈 한 쪽만 할까?”

어머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 중 하나를 딸에게 이식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어머니는 조용히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딸애에게 내 오른쪽 눈을 주세요. 반드시 오른쪽이어야 만 합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이식할 때는 보통 나쁜 시력을 가진 눈을 이식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평소 제 왼쪽 눈은 자주 아팠고, 시력도 오른쪽이 더 좋아요. 그리고 딸애가 태어날 때는 저는 건강을 주지 못했지만, 이번 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게 합니다.

오늘 딸애에게 가장 건강한 눈을 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가 희망의 삶, 행복의 삶, 구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다시 느껴봅니다.

성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도 기어이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가 거기에 이르니 제과점인 듯 빵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돌멩이처럼 딱딱한 빵이 있는가 하면 밀가루가 아니고 밀 자체로 버무려져 있는 빵, 지푸라기나 돌가루가 섞인 채로 구어져 있는 빵도 있었습니다.

그는 감별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부드럽고 먹음직스러운 빵은 누구신가요?”

감별인이 한심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먹었으면서도 모르십니까? 예수님 빵 아닌가요?” “그럼, 저는 ….”

그는 순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지푸라기와 돌가루가 섞여서 돌멩이처럼 구어져 있는 빵에 그의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오심을 알고 있으면서 하느님을 믿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느님이 왜 오셨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하느님이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잊고 우리 자신이 사랑 받기만을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듯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앞서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산악인이 험준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반나절 거리를 두고 동료들은 하루를 쉬었다 가기로 했지만, 그는 혼자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심하게 불고 추위가 엄습해 왔습니다. 게다가 주위가 어두워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발을 내닫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주님,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는 순간 무언가가 그를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로프였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로프에 매달려 난생처음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산 위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네가 잡고 있는 줄을 끊어라.” 그는 갈등했습니다.

줄을 끊으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지? 그는 고민 끝에 로프를 붙들고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동료들은 어른 키만 한 높이에게 로프를 붙자고 얼어 죽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소금 항아리’에서)

한 번쯤은 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믿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하느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지만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기에 그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깨지는 데는 아주 작은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맞나?’ 하는 의문에서 말입니다.

사순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의 시간이 되도록,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한 소녀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중년의 여성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사는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따라 외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놀라서 머뭇거리는 소녀에게 판사는 더 큰소리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큰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벌써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형벌을 받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판사는 소년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말을 따라 외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소녀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귀가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치료를 받았지만 학교를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듯 삶이 망가진 아이에게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로 두 손을 꼭 잡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단다.”

(2010년 4월 서울가정법원 소년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잘못을 반복해도 언제나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견은 모든 일을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관심은 모든 일을 상대방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고 대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불평하는 습관, 비판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어려울 때 어두운 면만을 찾아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근심만 하면 더 큰 불행을 만듭니다. 걱정과 근심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걱정 중에 9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걱정만 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코틀랜드 시인 재닛 그레이엄은 “만물 조물주가 우리가 우울하기를 바랐다면 땅에 초록색이 아닌 검은색 옷을 입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록색은 명랑함과 기쁨의 옷입니다. 삶에 어둠과 고통이 올 때도 초록의 생명으로 돋아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깊이 보고 따뜻하게 덮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삶과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만나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서 행복을 바라보고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삶에서 좌절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힘과 열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소금 항아리’에서 용혜원님의 글)

우리는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이야기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집니다.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희망과 기쁨의 사순 시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실은 노인의 발치라는 것

하룻밤 사이의 성공은 보통 15년이 걸린다는 것

어렸을 때 여름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지주가 된다는 것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사라진다는 것

돈으로 인간의 품격을 살수는 없다는 것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

하느님도 여러 날 걸린 일을 우리는 하루 걸려 하려 든다는 것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한(恨)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산꼭대기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그 산을 올라 갈 때라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삶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진정한 삶은 늘 해답이 뻔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느님의 집’에서)

이 글은 페페 신부님이 쓰신 ‘내가 이제야 깨닫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보고, 듣고, 좋은 충고와 좋은 말을 듣고 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갔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 뒤를 돌아보며 유언처럼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바로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였다고, 삶이 너무 절망스러워 그때는 신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만 같았다고,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쯤은 내 등을 다독여주면서 “다 잘 될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해주었으면 싶었다고, 이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줄 거라고는 이거, 오뎅 한 꼬치, 떡볶이 한 접시밖에 없어서 그게 마음 아프다고.

그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일까? 그녀가 내놓은 건, 떡볶이든 순대든 오뎅이든 맛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오뎅 국물 속에 들어 있는 꽃게 몇 마리를 가리키며 아줌마는 오뎅 국물에 저런 것도 다 넣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그랬습니다.

음식 맛이라는 게 대단한 비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손님이 먹어보고 맛있으려면 내 자식 먹는 음식 만든다,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뭐 몸에 좋은 거 더 없을까, 맛있는 게 뭐 더 없을까, 자연히 궁리하게 되는 거라고.

(이명랑 / 우리교육 / ‘참 아름다운 당신’ 중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라는 말에 우리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대는 너무 힘든데 하느님도 나를 안도와 주시는 듯 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느냐고 말을 하면서 섭섭함을 표현하기만 하지 정작 내 자신이 함께 있어줘야 할 때는 조용히 자신의 일이 아닌 듯이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병환자든, 소경이든, 벙어리이든, 마귀가 들렸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의 옆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힘들어 하는 이들의 옆에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물이 있었습니다. 이 강물은 깊은 산속에서 시작하여 험준한 산골짜기를 지나고 폭포를 거쳐 산자락을 돌아 들녘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모래와 자갈로 된 사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막 너머에는 강물의 종착지인 바다가 출렁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그 바다에 이를지?’ 강물은 당황하였습니다.

바다와 합류하려면 기필코 그 사막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마음을 가다듬고 사막을 향해 힘껏 돌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막과 맞부딪치는 순간 강물은 소리 없이 모래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강물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막을 무난히 건널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때 문득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목소리가 들여왔습니다. “네 자신을 증발시켜 바람에 네 몸을 맡겨라. 바람은 사막 저편에서 너를 비로 뿌려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 강물이 되어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샘’중에서)

레지오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여러 가지 성당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미사도 잘나오시던 분인데 갑자기 냉담을 하고, 성당에 오지도,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느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소리를 들었거나,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이 생겨서 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냉담하고 하느님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의 위기에 빠집니다. 이것은 강물이 바다에 가까이 갔지만 사막이 막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강물이 자신을 증발시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사막 저편 바다로 들어가듯이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존심과 이기심, 시기와 질투, 미움을 증발시켜 그리스도께 몸을 맡기고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을 향해 하느님의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내려다봅니다. 주먹을 쥐어봅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리고 긴장 때문에 주먹을 부르쥡니다. 가만히 낮은 소리로 “손을 펴시오”라고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욕심을 버리라고 집착을 끊으라고 긴장을 풀라고 하는 말입니다.

병 속의 땅콩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원숭이는 얼른 손을 집어넣어 한 움큼 집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의 입구가 좁아 주먹 쥔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주먹을 펴야 할 텐데, 원숭이는 당장 손아귀의 땅콩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리수를 두기 마련인데, 자칫 잘못하다간 주먹을 펴지 못해 병에서 손도 땅콩도 꺼낼 수 없는 이 원숭이의 처지와 비슷해지기 쉽습니다.

자유도 잃고, 욕심도 못 채우고, 살면서 욕심으로 손아귀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애써 힘을 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손이 된 후에야 다시 무언가를, 누군가를 잡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가파른 고갯길일수록 쉬어가며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고, 삶이 풍족하려면 여유가 없이 빡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금 항아리’에서)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됩니다. 원숭이가 병 속의 땅콩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욕심과 집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듣고,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누고, 함께하는 사랑을 살아야 한다는 것 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으면, 원숭이가 땅콩 집은 손을 펴면 더 많은 가능성과 행복이 펼쳐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곧 우리의 구세주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펴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러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마법의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법의 반지를 지니는 사람은 ‘자비와 친절과 관용’ 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갖게 되어서 반지의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늙어 죽을 때가 되자 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반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지의 주인은 세 아들에게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곤 아무도 몰래 반지 만드는 곳으로 찾아가 자신의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두 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일 역시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반지 주인은 원래 반지와 똑같은 반지 두 개를 받았고, 그 사람은 아들을 한 명씩 불러, 반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세 아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마법의 반지를 가졌음을 증명하려고,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했다고 합니다.

(‘소금 항아리’에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종교인들도 반지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인이든 더 이상 자비와 친절과 관용으로 살지 않으면, 그 종교는 가짜 종교인 겁니다.’(‘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898호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자비와 친절 그리고 너그러운 온유’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요? 연수를 하면서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하느님은 지식으로만 인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인 나의 모습을 반성해 봅니다.

안다고 하면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하느님께 청하여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이웃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말입니다.

늘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슴 아래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평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병에 걸린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 번 곰곰이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절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에게 문병 왔습니다. 그는 이미 의사로부터 2일 정도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가 문병 온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야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네. 너무도 늦어 버린 이제야 ….”

흐느끼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진 친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만일 자네에게 1주일간의 삶이 더 허락된다면 자네는 어떻게 살아갈 텐가?”

그 사람은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 한 번뿐인 것처럼 ….”

(‘좋은 생각’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기도 하고, 추수한 수확물을 보고 풍요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때 마지막을 준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더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딱 한 번뿐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삶이기에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하지’ 하는 생각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할 수 있으며 다음이라는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하여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지금 이 순간 사랑을, 배려와 이해를, 나눔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커다란 강가에 수많은 낚시꾼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왜 이렇게 고기가 안 물리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홀로 멀리 떨어져 낚시를 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강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낚시를 하던 한 청년이 큰 어항에 대어들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바구니에 고기 한 마리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청년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빙긋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더욱 궁금해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신기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청년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별 거 아닙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삶에 적용되는 법칙이니까요.”

(‘좋은 생각’에서 ‘행복 비타민’ 박성철)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등등 말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알고 있으면서 언제부터인지 편하게 입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봉사도 입으로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자고 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봉사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말이 아니 행동으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닌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낚시하는 청년처럼 봉사가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아빠, 기도하면 하느님이 기름을 넣어 주셔?”

“녀석, 순진하기는 … 아무리 하느님이시라도 어떻게 기름을 넣어 주시겠니? 그러지 말고 남은 기름으로 숙소까지 무사히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렴.”

근데 야속하게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르르 … ’ 하면서 차의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온 힘을 다 쏟아 운전하던 나는 갑자기 맥이 탁 풀렸습니다.

눈을 감고 뒤로 누웠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대책이 안 떠올랐습니다. 물론 긴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겠지만, 산 위까지 올라오려고 할지, 몇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날은 무척 더웠고, 모처럼의 휴가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려고 차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의 산의 정상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차선에 웬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통에 ‘등유’라고 써 놓은 주유소 트럭이었습니다. 보일러에 난방유를 공급하는 차인데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였습니다. 등유를 차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맘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제 차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혹시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있나요?” 그 아저씨 왈 “아니, 이 차 한 차가 다 경유인데, 어디서 경유를 찾아유?” “으아!” 너무 기뻐 환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름을 넣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쥬.”

하느님이 세워 두신 트럭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느님이 기름을 넣어 주셔?” 하고 묻던 하상이의 질문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애들아, 하느님께서 기름도 넣어 주셨단다.”

 (‘소금항아리’에서 전무석/생활성서사/‘최고의 선물’의 글을 재인용함)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사랑의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그 일이 곧 기도가 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우리 공동체의 사도로서 일하고 있음을 느끼는가?

나는 일을 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히는 것을 때로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하느님의 마음에만 들고자 하는가?

​(‘소금 항아리’에서 복자 마더 데레사 수녀의 글)

우리가 성당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끝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봉사가 하느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봉사가 되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제 안에, 그리고 모든 이들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의지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을 욕되게 하거나 심판하는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합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제 안에 그리고 모든 이들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의지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도 좋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든 생각으로든 남을 심판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 ('소금항아리'에서 톨스토이의 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지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아픈 이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등등 참을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 잘 지내고, 도와주며, 행복하길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 혹시 행동으로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내 자신이 친절해야지 하면서 다른이가 나에게 친절하기를 바라고, 내가 도와주어야지 하면서 다른 이가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기도와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이 따르는 기도와 사랑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수년 동안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와 우편환이 동봉되어 왔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의 무덤에 신선한 꽃다발을 갖다 놓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색이 완연한 늙은 부인이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아들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아 주려고 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제가 앞으로 몇 주일밖에 더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관리인은 말없이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드디어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꽃을 사라고 부인이 계속 돈을 부쳐 주시는 걸 보고 늘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유감이라니요?”

“유감이지요.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꽃을 보거나 향내를 맡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립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그 향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 그런 곳에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앉아 있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그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는 직접 꽃다발을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몹시 기뻐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기뻐지고요....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삶의 목표를 다시 찾았습니다.”

(‘좋은 생각’에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의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잃어버린 이들은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자포자기 하며, 의욕이 없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마르5,36)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대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에 잠을 깼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여자였는데, 자살 문제를 두고 20분가량 횡설수설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녹초 상태였으나 여자가 스스로 대화를 마무리할 때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프랭클 박사를 직접 만나게 된 여자는 목숨을 살려 주어 고맙다고 거듭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 전화 사건을 떠올리고, 자신은 그때 너무 졸려서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 준 게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 새벽 3시에 전화를 붙들고 얼굴도 모르는 저와 20분이나 대화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 자신이 뭔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게 해 주었고 그래서 계속 살아 보려고 결심했답니다.”

프랭클 박사는 한 사람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그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손희송 / 생활성서사 /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에서)

들여오는 뉴스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향해 달려가 구해주는 의로운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에게 도움이 되어 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이 다른 이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을,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 마디가 다른 이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신의 병 목록을 적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검진을 끝낸 의사는 그녀에게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확신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병은 삶에 대한 그녀의 부정적인 자세, 이를테면 슬픔과 원통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쌓인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 의사는 자신의 진료실에 딸려 있는 온갖 종류의 약들이 즐비한 조그만 방으로 여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빈 병으로 가득 찬 선반을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속이 텅 비어 있는 병들이 보입니까? 저것들은 제각기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흡사하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병들이 그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중 하나를 집어서 안에다 사람 한 명쯤은 너끈히 죽이고도 남을 만한 양의 독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열을 내리게 하고, 욱신욱신 쑤시는 두통을 사라지게 하고, 몸에 잠복해 있는 박테리아를 퇴치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약으로 병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그것으로 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은 이런 빈 병들 중의 하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가짐, 혹은 사랑으로 그것을 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지극히 해롭고 파괴적인 생각들로 그 병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답니다.”

(‘좋은 생각’중에서)

빈 병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을 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례하여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면 어떨까요?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빈 병을 채우도록 해요.

‘뉴딜 정책’ 으로 유명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 루스벨트는 꿈과 비전이 있고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39세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의에 빠진 루스벨트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약혼녀인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참으로 뼈를 깎는 고통과 피가 마르는 아픔을 삼키며 슬픈 눈빛으로 약혼녀에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약혼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참이었습니다.

약혼녀 엘레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동안 당신의 성한 다리만 사랑한 줄 아셨나요? 내가 사랑한 것은 루스벨트라는 사람입니다.”

(‘지하철 사랑의 편지’ 용혜원)

가끔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은 이 죄인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없어 하면서 하느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생긴 외모나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온다면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천사들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대변인 노릇을 하는 가브리엘 천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 모든 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남겨 두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다소 놀란 듯이 가브리엘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라도 하면 어쩔 셈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 그들을 믿는다.”

(‘주님 맛들이기’에서)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 그들을 믿는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발전하며 복잡해졌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듯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증인으로써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로써 기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유명한 작가 아리는 그의 친구 지보우 그리고 마샤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낭떠리지에서 마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다행이 지보우가 그녀를 잡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샤는 부근에 있던 돌 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 지보우가 마샤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들이 어느 강기슭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부족하여 말다툼이 일어나 지보우가 마샤의 빰을 때렸습니다. 마샤는 모래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 지보우가 마샤의 빰을 때렸다.”

영행이 끝날 무렵 아리는 마샤에게 왜 각기 다른 물건 위에 그 일을 기록했는지 물었습니다.

마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 위에 새긴 것은 지보우가 나를 구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것이고, 모래 위에 쓴 것은 바람만 한 번 불면 언제든지 깨끗이 지워지기 때문이야.”

아리는 탄복하여 마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너와 같은 훌륭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 행운이야!”

(‘깨달음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바이밍량)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 우리 각자는 같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동상이몽’의 사랑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이 다른 이에게 잘해준 것은 기억하면서 다른 이가 잘해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이에게 잘못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면서 다른 이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마샤는 반대로 자신에게 잘해준 것은 돌에 새겨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모래에 써서 잊혀지게 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자의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방식을 배울 때만 가능합니다. 희생과 기다림 그리고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의 사랑방식을 따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15세의 한 소녀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소녀에게 병과 앞으로의 치료 방법,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녀는 더 깊은 실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에 소녀의 고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소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그녀는 꽃집에 전화를 걸어 조카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쁜 꽃을 배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녀는 꽃에 꽂혀 있는 고모의 카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쁜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꽃을 주문받고 준비했어요. 저는 일곱 살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물두 살이에요. 행운을 기원하면서.”

소녀를 지켜보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최신의 의료 기기로 치료해 주었지만, 정작 그 소녀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꽃집에서 일하면서 정성껏 카드 한 장을 써서 소녀에게 보내 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동행’ 중에서)

우리는 종종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고, 힘이 되어 주는 이들이 전문가이거나 아주 훌륭한 분들이 아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관심어린 같은 마음을 가진 말 한마디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는 마음만으로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써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황 요한23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교황 자리에 오르기 전 상류층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무시와 푸대접을 당했습니다. 한번은 어느 파티에서 한 사람이 성직자인 그에게 여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세상에는 이런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 23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구 …. 사모님이신가 보군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유머로 풀었습니다. 성탄절 포마 감옥을 방문해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오시기가 불편할 거 같아, 제가 이리로 왔습니다.” 이게 보통 머리와 보통 내공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걸 나는 이 ‘깃털’을 쓰며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기도를 하지도 좋은 일을 하지도 못할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공지영/한겨레출판사/‘아주가벼운깃털하나’에서)

교황 요한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회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유머가 넘쳐나신 분이었습니다. 유머는 보통의 머리와 보통의 지식으로는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분의 이야기를 하며 부러워하고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합니다.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을 따라 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화 데레사 성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기도를 하지도 좋은 일을 하지도 못할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말 한마디가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눈이 멀어 거동을 잘 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달리 옆에서 돌봐 줄 사람도 말동무할 상대도 없는 노인은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노인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라디오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머릿속엔 갖가지 추억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노인의 라디오는 너무 오래되어 잡음이 무척 심하게 나서 듣기가 조금은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한 이웃사람이 노인에게 새 라디오를 선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헌 라디오는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노인의 방엔 새 라디오의 맑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새 라디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 라디오를 듣던 노인은 소말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구호품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혹 자신이 할 일이 없을까 여러 날 생각하다가 라디오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더듬더듬 헌 라디오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새 라디오는 고이 싸서 한 켠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새 라디오를 구호품으로 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헌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

헌 라디오의 잡음은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잡음 나는 라디오의 구성진 노래 가락에 손장단을 맞추는 장님노인의 얼굴은 더 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은생각’중에서)

사랑의 실천, 나눔은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나눔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살아가야 합니다.

듣기 거북한 헌 라디오 소리도 사랑의 실천 속에서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쁘고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네가 남 이야기 하려면 세 가지를 자문해야 한다."

어리둥절해진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아들아 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냐?"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전해 들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선(善)한 내용이냐?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어야 한다."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너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아들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진실한 것도, 선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 그만 잊어 버리거라. 또한 중요한 것은 남 이야기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타인에 대한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욕을 먹는 사람과 욕을 들어 주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한 자신이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함과 두려움과 창피함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진실’인지, ‘선’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험담보다는 칭찬의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로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광에서 한 노동자가 일하다 불발탄을 괭이로 잘못 건드려 즉사했습니다. 사망자의 아내는 남편을 잃은 고통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경제적 압박감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갈 길이 막막해 수심에 잠겼는데 위로 차 찾아온 매니저가 철광 부근에서 아침거리를 파는 난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만두를 만들어 철광 부근에 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첫날에는 식객 열두 명이 찾아와 만두를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두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이튿날부터는 더 많은 식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장사가 잘 될 때에는 이삼십 명씩, 아무리 장사가 안 되는 날이라도 열두 명은 꼭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철광 직원들의 아내들은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엔 별 투정 없이 집에서 해주는 밥만 먹고 다니던 남편들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꼭 만두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 만두를 빚기도 했지만, 남편은 먹는 척만 하고는 여전히 철광 난전에 가서 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사고가 발생해 매니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 가는 도중에 매니저는 마지막 숨을 몰아 쉬며 아내에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꼭 나대신 매일 만두 난전에 가서 만두 한 그릇씩 사 먹어요. 이건 우리 그룹의 동료들끼리 한 약속이오. 친구가 죽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처자식들을 우리 말고 또 누가 도와주겠소?” 그로부터 만두 난전에는 여자 단골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친구의 아들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그 아내는 귀밑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습니다. 난전을 찾아오는 이들도 늙은이에서 젊은이로 교체되고, 여자와 남자가 교체되었지만 단 하루도 열두 명 이하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랑의 마음만은 단 하루도 빛바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연희 엮음 / 토파즈 / ‘장미 한 송이’에서)

“이건 우리 그룹의 동료들끼리 한 약속이오.”라고 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약속을 하면 꼭 지키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이가 들면서 그 가르침을 지키기 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따라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등에 지고 행복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넜지만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의 빠진 부자는 산길 한편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무거운 땔감을 짊어진 농부 하나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라오. 혹시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시오?”

그러자 농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무거운 땔감을 내려놓으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행복이 별 거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게 바로 행복이지.”

그 순간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등에 항상 무거운 보물을 진 채 누가 훔쳐갈까 또 누가 허튼짓을 할까 하루 종일 종종거리다가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썼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풍요로워졌고,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쑤춘리 / 제이드문 / ‘인생에게’에서)

가끔 내 자신이 미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수없이 말해놓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저 자신이 말입니다.

더 가지고 있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새로운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기에 말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남의 떡이 아닌 나의 떡을 나눔으로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린 외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약속을 어긴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 약속을 어기면 그땐 추운 다락방으로 보낼 테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만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추운 다락방에 아들을 올려 보내고 부부는 서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신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애를 지금 다락방에서 데려오면 아이는 당신 말을 듣지 않게 될 거예요.” 남편의 약함 마음을 헤아린 아내의 말에 “당신 말이 옳아. 그러나 그 애는 지금 얼마나 무섭고 추울까?”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추운 다락방의 딱딱한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아들.

그 옆에 말없이 누워 팔베게를 해주고 꼭 끌어안아 준 아버지.

이윽고 어린 아들의 두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생각’에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냥 추운 다락방에 아이를 그냥 두거나 아님 참지 못하고 용서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사랑은 무관심도 아니고, 조급함도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있는 것이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하며, 나누고 기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한번은 그의 제자 하나가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난한 척하는 부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이 말에 가난한 사람은 상심하였고 프란치스코는 크게 화를 내며 제자를 꾸짖어, 그 가난한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발에 입 맞추며 용서를 빌라고 명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주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오. 가난한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몸소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의 형상이오.”

나뭇짐이나 다른 무거운 짐을 진 가난한 사람을 보고 연약한 자기 어깨에 그 짐을 옮겨서 지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드물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는 것이 그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거니와 그것이 어떤 거짓된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동정과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이미 넝마 같았지만 그마저 없는 이를 만나면 벗어 주어야 했습니다.

추운 날에는 부자를 찾아가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외투와 목도리를 얻었는데, 그것들은 곧장 다음 차례에 만나는 가난한 사람한테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는 온갖 방법으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소금항아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장애인이나 약자들을 찾아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파격적이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모습으로 보이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이렇게 실천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몸소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의 형상이시기에 마음으로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작은 실천이 작은 기도가 바로 하느님을 증거하며, 사랑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짓말 없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위하여”

만약 당신이 지상의 것만을 추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이기주의로 인해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리”** 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매일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거나 저주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물질적인 성공만을 원한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고통스럽거나 괴로울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다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악을 대항하며 싸우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아멘”** 이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맛들이기’에서)

우리는 입으로만 머리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과 함께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지냅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거짓 없는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의롭게 이웃을 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스승 밑에서 몇 년을 함께 살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스승의 눈을 피해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스승 곁에서 배운 것은 고작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라 직업을 얻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새삼 밥을 벌어먹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 제자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스승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스승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밤, 스승은 언제나 그랬듯 무뚝뚝한 태도로 제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가려던 제자는 아무것도 사오지 않은 빈손임을 생각하고 몹시 죄송스러워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자 누워있던 스승은 등을 돌려 이불을 들추고 제자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거기다 그냥 내려놓고 들어오너라.”

아무것도 사들고 오지 못해 더욱 마음이 무거웠던 제자는 스승의 말의 듯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꼬는 건지, 무안을 주는 건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과 두 개라도 사가지고 올 걸.’ 제자는 어쩔 줄을 모르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때 다시 스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기다 놓고 이리 오라니까 그러는구나.”

더 이상은 참지 못한 제자가 볼멘소리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야속하십니다. 빈손으로 온 제게 자꾸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젠 정말로 무정한 스승의 곁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제자는 재빨리 등을 돌렸습니다. “못난 놈!” 나지막한 스승의 목소리가 제자의 귀청을 때렸습니다.

‘아! 스승님!’ 순간 섬광 같은 깨달음이 제자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은 선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사오지 못해 죄송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에서)

스승의 마음이 제자의 죄송함을 감싸주듯이, 더 위대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이웃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용서해주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